

人格的資態와 精神的修養不足하고야 何者를營함에 障礙를 進行하며 何人을 說破
 함을 抵抗업시 聽從하리요 故로 余는 吾等法侶가 二重人格을 突破하기를 主張하노라
 若二重人格을 突破치 아니하고 欺罔의 盲目的 行動을 作하면 諸君의 行動은 正當을 行
 動이 아니고 不正者이며 諸君의 善은 眞善이 아니고 僞善이며 諸君의 事業은 公正을
 事業이 아니고 偏重을 事業이 될지라 祖述을 固執하고 新規를 建設하지 못하면 時代의
 後人을 作할지라 三千年前의 佛祖의 戒律이 三千年后 今日의 民智에 適合을 事萬無
 一니 破壞者는 破壞하고 建設者는 建設할지라도 娶妻食肉等도 躊躇하지 말고 國
 家의 安寧秩序와 社會의 風紀를 不紊하게 하는 範圍內에서 進行하면 或一部人土가 非
 謗을 지라도 此는 아즉 常識이 未熟하고 見聞이 狹少하며 時代의 思潮와 世界의 趨勢를
 不知하는 偏見者의 流이니 無足可論이라 我的 行을 責任만 充分이 進行하면 此亦 習慣
 이 되어 自然的으로 改良될지니 何者에 躊躇하지요 然이 今日法侶는 有而無하며 內
 有而外無하며 獨行而非同行하니 此는 所謂掩耳偷鈴이라 社會人土에 何人이 不知하
 리오 此等幼稚를 識見을 突破하고 和盤托出하는 것이 卽二重人格을 突破하는 者니
 부디 假面과 虛僞와 因襲의 思想을 突破할지이다

現代人의 一部에 是 求道의 至誠心이 熱烈者一有하야 眞正으로 宗教의 關門을叩
 코자하는 要求는 世界民族의 思想界에 澎漲을 야스니 今般大戰后로 十二倍는 增加流
 行함을 不拘하고 今日佛敎界는 何故로 寂寞을 가此는 現代佛敎大衆라 稱하는 諸氏가

薄弱을 雰圍氣에 包含하야 恒常安協的 迎合에 依하야 其生命을 持續코자함에 在하니라
 然이 眞面目으로 宗教를 求코자하는 現代人土에 是 因襲과 虛僞가 充滿을 宗教家의
 態度로 憎惡를 買할지라 心靈上의 實際問題를 提燈하야 何事든지 解決코자하는 此
 時代에 可惜하다 因襲에 捉捕된 佛敎家는 依然히 突破치 못하고 虛僞의 假面을 被하야
 此에 接코자하니 可痛할바이다

現代人은 如斯히 人民의 本能性과 背馳하는 宗教에 依하야 滿足을 理由가 無하니라
 一切의 假面을 去한 然後에 先히 自己가 徹底한 人生觀의 上에 立脚하야 內的 統一을 斷
 行하고 一切人民의 友가 되며 師가 될 要素를 養成하는 것이 佛敎家의 先決問題인 줄 自
 信하노라 (完)

日本の文明과 三敎

法華宗管長 本多日生 內務省囑托

몬져 佛神儒三敎와 日本文明의 關係를 略說하고 다음에 三敎의 特色에 對한 管見을 叙述하겠다.

日本文明史를 極히 公平大觀하면 今日까지의 文明은 無論此三敎의 感化를 받은바
 一만히, 만일 此三敎를 버린다면 日本의 文明은 空虛일 것이다. 그럼으로 三敎의 研究